

삶 속에서 나를 찾고 만나야
나를 깊이 만날 수 있다.

작성일 : 2010. 10. 14 (금) 새벽3: 25~

작성자 : 양주희 (포항주사랑교회 교역자)

[주님과 여러 가지를 대화하다 주님께 “주님 진정 주님 마음, 주님 심정 알고, 깊은 심정의 성산에 올라 주님 마음 깨닫고 주님 마음 위로해드리며 주님과 하나 되어 가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하고 말씀 드렸을 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 예수님 말씀 *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날마다 매 순간 나와 하나 되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나를 찾고 불러라.

기도 시간에만 나를 찾지 말고 삶 속에서 나를 불러야

나를 깊이 만날 수 있다.

나와 깊이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잘 들어보아라.

내가 너희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자 함께 한다.

그 가운데 나를 느끼는 자, 큰 자인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느끼며

나와 대화하고 나와 통하는 자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섭리의 신부들아.

특히 내 심정 알고 나의 마음 위로하며

나와 진정 하나 되고자 몸부림치는

나의 심정의 애인들에게 한마디 하겠노라.

날마다 나와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너희의 수고

내가 다 아노라.

눈물로 나를 찾고 부르며

나와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너희의 삶을 내가 보고 있노라.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내 깊은 사랑 전할 것이다.

나와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 깊은 심정 전할 것이다.

나와 만나고 싶으나.

나와 깊은 세계에 들어가 나와 만나 대화하고 싶으나.

그렇다면 먼저는 너희의 삶 속에서

나와 만나는 것을 연습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삶 가운데 매일 함께하며

내 사랑을 부어주고 있고 내 심정을 전하고 있다.

너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 시간만큼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니

잘 모르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기도 시간에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생각을 하지 말아라.

삶 속에서 함께하며 너희와 대화하고자 하는

나 예수를 알아라.

깊은 기도로 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먼저는 너희의 삶을 나에게 맞추며

삶 속에서 나와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매일 살아가는 그 터전에서

나를 찾고 부르며 나와 대화하고자 하여라.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묻는 연습을 하며 살아보아라.

스쳐 지나가는 것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를 느끼며 살아보아라.

이렇게 너희 삶이 나와 하나 되어 가면

더욱 나와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

기도 시간만 나를 만나려 하니

깊이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 시간만 나를 찾고 부르니

내 깊은 심정 너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다.

선생처럼 삶 속에서 나를 찾고 부르며

나를 모시는 삶을 살도록 해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의 공간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너희 생각과 정신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그리 사는 자 나와 더욱 깊이 만나며

내 심정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입장, 너희 생각,

너희의 모든 환경을 생각하며 다가가는데

너희는 어찌 내 입장 생각해주지 않고

나의 환경 따지지 않느냐.

너희를 사랑하여 그 수십억만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나의 심정을 생각지 않고

너희 옆에 있는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희 옆에 늘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내 심정 알아다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내 심정 알아다오.
이런 나의 심정 깨닫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자
나와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너희 인간도 마음 알아주고 심정 알아줄 때
서로 속 깊은 말을 하지 않더냐.
나도 마찬가지다.
내 심정 알아주고 내 마음 알아줄 때
내 깊은 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 알고자 기도하며
나와 깊이 만나고자 기도하는 자들은
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부터 깨닫고
너희와 늘 함께하며 너희와 늘 동행하는
나 예수의 심정 깨닫기를 바란다.
너희와 매일 사랑의 대화를 하고자 귀를 기울이며
너희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나 예수의 심정 알아다오.

너희 삶 속에서 나와 대화하자.
너희의 삶 속에서 나를 찾고 부르도록 하여라.
삶 속에서 함께하는 나를 알아야
깊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러니 날마다 나와 하나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 하여라.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을 치도록 하여라.

내 너희를 사랑하여 늘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사랑 내 전부되는 내 심정들에게 내 사랑 전하노라.
사랑해. 너희의 신랑 주 예수.
안녕.